

■ 충남지역 노동자들 집회에 빠짐없이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 조합원들입니다. 정장위에 노조 조끼를 입고, 성악으로 민중가요를 부르는 합창단 문화공연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처음에는 다소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합창단이라는 품격있고 화려해 보이는 예술무대 이면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설움과 분노가 녹아있습니다. 누군가에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예술노동자들이 노동절 하루 전인 오늘, 거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기법도 외면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삶

■ <아산시립합창단>은 2003년에 재창단하여 23년간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예술문화 단체입니다. 합창단은 ‘비상임단체’라는 명칭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는 공공부문 예술단에서 쓰는 용어로 민간제조업 노동자에게 익숙한 ‘비정규직’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상임화’ 요구는 ‘정규직화’ 요구와 같은 뜻입니다.

합창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부터 13시까지, 주12시간입니다. 대표적인 ‘초단시간노동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합창단 노동자들은 ‘기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노동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기본급 자체가 워낙 낮습니다. 합창단 노동자들은 지난 8년간 임금이 동결이었으며, 소폭 상승했다가 3년간 또다시 임금동결을 겪었습니다. 23년차와 1년차 단원의 수당이 동일합니다.

아산시 “상임화 재정부담... 투잡 뛰어라”

■ 참다못한 합창단 노동자들은 2021년 3월 30일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 아산시립합창단지회, 이하 ‘노조’) 노조는 바로 사용자측(아산시)과 단체교섭을 하며 합창단의 상임화(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해 10월 노조는 아산시와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정년·근무시간 등 상임화와 직결되는 조항은 빠지게 됩니다.

아산시가 합창단 상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부담이었습니다. 아산시는 초단시간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합창단 노동자들에게 소위 ‘투잡’을 해서 돈을 더 벌라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창단한 다른 지자체 예술단은 상임으로 전환했는데, 유독 아산시립합창단만 비상임단체로 남아있는 것도 노동자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노조는 본격적으로 상임화 투쟁에 돌입합니다. 결국 당시 오세현 아산시장(민주당)은 연구용역을 전제로 상임화의 방향을 결정기로 합니다. 노조가 연구용역에 적극 개입하여 ‘단계적 상임화’ 결과를 만듭니다.

■ 하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경귀 아산시장(국민의 힘)으로 교체되면서 아산시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집행은 멈춥니다. 심지어 박 시장은 여타 지역문화예술 분야에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아산시가 직접 고용한 합창단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는 무관심했고 노조의 면담도 거부합니다. 이후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고 올해 4월 아산시장 재선거를 통해 다시 오세현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그 아산시장이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그 사이 노조는 2024년 단체교섭 결렬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여 투쟁의 힘을 올렸습니다. 노조는 아산시청앞에서 두 달동안 투쟁을 진행했고, 충남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연대의 실천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노조는 재선거 이후 아산시장과의 면담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질을 위한 차별과 희생 지자체가 책임져야

■ 합창단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결합니다. 아산시에서 합창단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합창단 노동자들의 소정노동시간을 늘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합창단 노동자에게 주1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주12시간 외 근무는 집에서 개인적인 연습일 뿐입니다. 철저히 ‘공짜노동’입니다. 적은 임금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초단시간노동(알바)를 찾게 됩니다. 아산시는 합창단 노동자들이 전체, 부분, 개인연습 등을 보장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합창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높이는 것이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산시장이 합창단 노동자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충남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23년 주12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이제 정규직 전환으로 끝내겠습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상임화
투쟁 승리 문화제**

일시 : 4월 30일(수) 16시
장소 : 온양온천역 광장

함께 투쟁할 동지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겠습니다!

